

2011년 제4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일시 | 2011. 6. 27.(월) 10:00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

2011년 제4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일시: 2011.06.27.(월) 10:00
- 장소: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10:10~10:40 **발표**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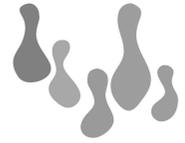
10:40~11:10 **토론**

안정은(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연구관)

이하원(성균관대학교 아동심리 및 교육학과 교수)

11:10~11:30 **질의응답 및 폐회**

§ 2011년 제4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



유아 외국어 교육실태 연구

발표자: 이운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아 외국어 교육실태 연구

발표자: 이윤진 부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국가는 유아교육·보육이 공적제도 하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재정 투입과 수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유치원과 보육시설 두 기관 이용률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는데, 2009년 기준 만 5세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91.0%에 다다랐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영 유아 사교육 시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대신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공교육·보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유아대상 영어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영어를 실시하고 있는 게 현주소이다. 특히, 취학 직전의 만 5세아 중심으로 영어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다(김은영·조혜주·김경미, 2009).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어교육을 실시해서는 안되지만, 유치원·보육시설과 유사하게 오전부터 운영하는 유아영어학원이 증가하고, 이들 학원 대부분이 만 5세아 대상의 학급을 운영하면서¹⁾ 주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현장은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유아대상 영어교육이 확산되면서 학계에서는 유아영어교육 실태, 인식, 영어를 비롯한 조기교육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조기영어교육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는 못하다. 조기영어교육이 모국어 습득에 혼란을 야기시키지도 않으며 오히려 영어를 전혀 접하지 않은 유아들에게서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는 조기영어

1) 2009년 이윤진·문무경·김문경·양시내(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유아영어학원은 만 3세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는 39.2%이지만, 만 5세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는 96.2%에 이르러 유아영어학원의 주요 대상 수강생은 만 5세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경희·전예자, 1996; 양소영, 2004)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기영어교육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며(우남희, 2006, 2007), 유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홍은자, 2001; 신의진, 2002), 유아의 사회성이 낮다는—국어, 수학 성적은 별차이가 없음—(이기숙, 2002) 부정적인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도 많다. 요컨대 유아기에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효과도 있다 라는 긍정적인 연구와 초등학교 이전부터 하는 영어교육은 인지, 지능, 정서, 사회 측면에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영어교육 관련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특히, 영어학원을 다니는 유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산층 이상이란 점이다.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명명되는 유아영어학원은 고액의 학원이다. 이운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 연구에서 영어학원은 월수업료가 평균 60만원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이 다니는 미술학원(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원) 29만원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았다. 여기에 영어특별활동프로그램비 25.5만원을 추가하면 유아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는 100만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고액의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가구는 부모 대부분(아버지 93.1%, 어머니 85.4%)이 대졸이며, 월평균가구소득이 300~599만원이 65%, 600만원 이상 21.6%로 중상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는 ‘남과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 이용시 지원혜택이 없는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중산층의 엘리트 부모라고 볼 수 있는 이들 가정에서 조기영어교육의 병폐와 문제점을 밝힌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사실이 흥미롭다.

본 연구는 영어구사 정도가 개인의 소득과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영어격차가 우리사회에 작동하는 오늘날, 유아들의 영어교육 실태를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유아보다는, 가장 최근에 유아기를 거친 2010년 기준 초등학생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만 3세, 만 4세, 만 5세 때의 영어교육 경험을 알아보았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 2학년생이 만 5세였던 2008년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율이 주춤했던²⁾ 시기라는 점에서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관심도가 절정에 달했던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유치원 대신 선택하는 영어학원의 교육실태를 면밀하게 고찰하여,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도 학부모의 영어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영어교육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2008년 유·보 이용율은 85.7%였음.

2. 연구 방법

가. 설문조사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주양육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0년 6월 28일부터 2010년 7월 18일 21일간이었다. 본 조사의 응답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에³⁾ 소재한 초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주 양육자 1,200명이다. 응답자 선정은 면접원의 임의표집에 의해 적격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표본할당은 자녀 성별은 남녀 비율 1:1(600명씩), 서울과 경기도 비율을 1:1(600명씩)로 임의할당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의 성별구성은 남학생이 604명(50.3%), 여학생이 596명(49.7%)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 양육자의 교육수준의 경우 부모가 모두 대졸이상인 59.3%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301~400만원 이하가 37.2%, 300만원 이하가 35.6%를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응답자수	비율
전 체	1,200	100.0
자녀성별		
남자	604	50.3
여자	596	49.7
부모 학력		
부모 고졸이하	290	24.2
부모 학력 다름	199	16.6
부모 대졸이상	711	59.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7	35.6
301~400만원 이하	446	37.2
400만원 초과	327	27.3
광역시도		
서울	600	50.0
경기도	600	50.0

3) 서울과 경기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취원율(이용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자, 유아영어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므로 이 두 지역으로 한정함.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		내용
일반현황	자녀현황	·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설립종류(국공립, 사립) · 연령, 성별, 거주지, 출생순위,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시기·기간
	부모현황	· 연령, 학력, 직업, 고용상태, 가구소득
처음 영어교육 관련		· 시작시기, 시작하게 된 동기, 미 실시 이유
연령별 기관에서의 영어교육 경험 (만 3세, 4세, 5세)		· 반일제 이용 기관 종류, 오전 영어교육 횟수·시간·비용, 오후 영어교육 영어교육 횟수·시간·비용, 반일제 기관 외 영어교육 경험 여부 및 이용 기관 종류·횟수·시간·비용
취학전 가정내 영어교육		· 영어교육 경험 여부, 영어교육을 위해 교재교구 마련 방법·비용, 이용시기, 영어교육 방법별(학습지, 인터넷, 그룹과외) 이용 경험 여부, 이용시기·주당횟수·시간·비용
취학전 영어교육 비용		· 월가구소득 대비 영어관련지출 비용액수, 비중, 부담 정도
취학전 영어교육 만족도		·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흥미유발, 비용 대비 만족도 등, 영어로 인한 문제행동 표출 정도
기타 외국어 경험		· 영어 외 외국어 교육경험 여부

나. 면접심층조사

유아 영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관련된 분야의 현장 전문가, 학부모,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학원장, 유아영어학원장을 면담조사하였다.

〈표 3〉 심층조사 대상자

피면담자	일시	직업	주요 면담내용
조○○	3월30일	사립초등학교 교사	· 본 사립초등학교 입학생 대부분은 유아영어 학원 출신임. · 본 사립초등학교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영어를 가르쳐왔으며 현재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음. · 주당 4시간 실시(원어민 교사, bilingual 한국인 교사)
손○○	3월18일	놀이치료사	· 언어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유아 대부분은 정상아보다는 정인지체 동반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임 · 그러나 과도한 부모의 교육열로 인해 스트레스성 언어장애를 보이는 사례도 있음.

피면담자	일시	직업	주요 면담내용
			· 이러한 경우 부모 스스로 자각보다는 유치원에서 제안해서 온 경우가 많음
백○○	4월1일	정신과의사	· 내원자 중 50% 자폐, 25%는 정인지체, 25%는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옴.
노○○	5월11일	언어치료사	·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말더듬이라 함. · 한국어 발달이 정상범주안에 있는 유아는 조기영어교육 효과가 있다고 봄.
석○○	6월24일 7월6일	사립유치원 원감	· 정규교육과정 이후 오후에 영어교육 실시 · 하루 30분 정도 영어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온 유아가 산만한 경우가 있음. · 학부모 상담시 가장 먼저 영어교육 운영을 물어봄
임○○	6월24일	학부모	·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유아기에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을 후회함. ·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흥미도 없음
김○○	7월23일	학부모	· 현재 자녀를 유아영어학원에 보냄. · 일반유치원과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지만, 영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선택함.
박○○	7월23일	학부모	· 어렵게 들어간 대학부설유치원을 도중에 포기하고 유아영어학원을 보냄. · 유치원에서 놀이식 방법의 영어교육에 불만족하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함
최○○	8월27일	영어학원장	· 수업중에 오로지 영어만 사용함. · 미국교과서를 사용함. 과목별 교과서 있음. · 과목별로 숙제가 있으며, 주당 1회 단어시험 실시
이○○	9월1일	사립유치원 원감	· 정규교육과정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영어를 오전에 실시함.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음. · 오전 영어프로그램은 유치원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임. 한국인영어교사가 전임으로 있음.
강○○	9월10일	전 유아영어학원장 현 문화센터 강사	· 유아영어학원을 운영했지만, 외국인강사 관리에 어려움으로 폐원하고 현재 백화점 유아영어 문화센터강사로 활동함 · 문화센터의 영어수업에 참관, 영어학원 수업 방식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이외에 유아영어학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유아영어학원의 수업방법, 교재, 시설·설비 등을 알아보았다(8월 14일).

3.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유아 외국어 교육은 **영어에 한정**하며, (유아)영어학원이란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유사하게 오전부터 주 5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원을 의미한다.

4. 설문조사 연구결과

가. 최초 영어교육 시기와 실시 이유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의 1200명이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한 연령은 3~4세(65.7%), 5세 이상(19.2%), 받은 적 없음(7.3%), 2세 이하(6.6%), 태교(1.3%)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3.7세에 처음으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2세 이하가 9.1%, 3~4세가 72.7%, 5세 이상이 9.1%로 나타났고, 고졸인 경우 2세 이하가 3.6%, 3~4세가 59.7%, 5세 이상이 0.8%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빠른 반면,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작 연령도 늦고, 영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14.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다는 경기지역이 영어를 더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산층이 많은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이 4.0세로 평균보다도 늦게 시작한 것이 눈에 띄지만, 영어태교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았다.

〈표 4〉 최초 영어교육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2세 이하	3~4세	5세 이상	영어태교	받은적 없음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6.6	65.7	19.2	1.3	7.3	100.0(1,200)	3.7	1.0
초등학교유형								
국·공립	6.6	65.1	19.6	1.3	7.4	100.0(1,164)	3.7	1.0
사립	5.6	83.3	5.6	2.8	2.8	100.0(36)	3.2	0.7
$\chi^2(df)=7.02(4)$								

구분	2세 이하	3~4 세	5세 이상	영어 태교	받은적 없음	계	평균	표준 편차
모학력								
중졸이하	20.0	20.0	20.0	20.0	20.0	100.0(5)	3.3	1.5
고졸	3.6	59.7	22.6	0.8	13.3	100.0(474)	3.8	0.9
대졸	8.5	69.9	17.0	1.5	3.1	100.0(710)	3.6	1.0
대학원졸이상	9.1	72.7	9.1	0.0	9.1	100.0(11)	3.5	0.8
$\chi^2(df)=79.19(12)^{***}$								
모취업여부								
비취업모	6.3	66.5	19.0	1.2	7.0	100.0(920)	3.7	1.0
취업모	7.5	62.9	19.6	1.8	8.2	100.0(280)	3.8	1.0
$\chi^2(df)=1.98(4)$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3.3	56.2	25.5	0.5	14.5	100.0(427)	3.9	0.9
301~400만원	6.7	72.4	15.7	1.6	3.6	100.0(446)	3.6	0.9
400만원초과	10.7	68.8	15.6	2.1	2.8	100.0(327)	3.6	1.0
$\chi^2(df)=91.62(8)^{***}$								
거주권역								
서울 도심권	12.5	50.8	28.3	0.8	7.5	100.0(120)	3.7	1.1
서울 동북권	5.0	44.6	22.3	1.7	26.4	100.0(121)	3.9	1.0
서울 서북권	10.0	69.2	14.2	1.7	5.0	100.0(120)	3.5	0.9
서울 서남권	5.1	68.6	16.1	1.7	8.5	100.0(118)	3.5	1.0
서울 동남권	5.8	50.4	37.2	3.3	3.3	100.0(121)	4.0	1.1
경기 북부권	0.0	62.6	24.3	0.0	13.0	100.0(115)	4.0	0.8
경기 서북권	15.0	81.7	2.5	0.8	0.0	100.0(120)	3.2	0.8
경기 서남권	1.7	67.8	19.8	3.3	7.4	100.0(121)	3.9	0.9
경기 남부권	7.1	79.5	11.8	0.0	1.6	100.0(127)	3.6	1.0
경기 동남권	3.4	81.2	15.4	0.0	0.0	100.0(117)	3.8	0.8
$\chi^2(df)=224.06(36)^{***}$								

*** $p < .001$.

취학전 영어교육을 하지 않은 7.3%(87사례)에게 실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우려되어서'(33.3%), '다른 교육을 먼저 해야 것 같아서(32.2%)'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와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소신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단 한 사례만이 취학 전에 영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염두해 둔 가정은 취학 전 영어교육을 거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사립초등학교 교사 면담, 학원장 면담 등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취학 전에 영어교육을 실시한 동기 1순위로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하려고'가 4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따라(20.3%), 초등학교 영어교육 준비를 위해서(13.2%), 자녀가 영

어에 관심을 보여서(9.5%), 국제화 시대에 영어능력이 필수라 생각해서(6.7%), 남들보다 뒤떨어지게 될까봐(5.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실시'로 인해 영어를 접하게 된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고, 소득을 높을수록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남들보다 뒤떨어질까봐' 등의 항목의 응답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46.6%)과 경기 지역(42.5%) 모두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하려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서울 지역(18.2%)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준비를 위해서', 경기 지역(24.9%)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프로그램에 따라'로 조사되었다.

〈표 5〉 취학 전 영어교육 실시 동기(1순위)

단위: %(명)

구분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하려고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실시	초등학교 영어교육 준비를 위해서	자녀가 영어에 관심을 보여서	국제화 시대에 영어능력이 필수라 생각해서	남들보다 뒤떨어질까봐	계
전 체	44.5	20.3	13.2	9.5	6.7	5.8	100.0(1,113)
학교유형							
국공립	44.8	20.1	13.2	9.8	6.7	5.4	100.0(1,078)
사립	34.3	25.7	14.3	0.0	8.6	17.1	100.0(35)
				$\chi^2(df)=13.17(5)^*$			
가구소득							
300만원이하	41.4	23.8	11.8	13.4	6.0	3.6	100.0(365)
301~400만원	47.0	16.3	14.7	8.4	6.5	7.2	100.0(430)
400만원초과	44.7	21.7	12.9	6.6	7.9	6.3	100.0(318)
				$\chi^2(df)=23.61(10)^{**}$			
거주권역							
서울 도심권	37.8	4.5	29.7	10.8	9.0	8.1	100.0(111)
서울 동북권	52.8	21.3	4.5	2.2	7.9	11.2	100.0(89)
서울 서북권	57.0	17.5	16.7	0.9	0.0	7.9	100.0(114)
서울 서남권	37.0	18.5	12.0	7.4	15.7	9.3	100.0(108)
서울 동남권	48.7	16.2	24.8	6.0	1.7	2.6	100.0(117)
경기 북부권	49.0	21.0	13.0	8.0	7.0	2.0	100.0(100)
경기 서북권	44.2	32.5	9.2	0.8	5.0	8.3	100.0(120)
경기 서남권	24.1	29.5	8.9	25.0	8.9	3.6	100.0(112)
경기 남부권	45.6	20.8	4.8	19.2	4.8	4.8	100.0(125)
경기 동남권	49.6	20.5	7.7	12.8	8.5	0.9	100.0(117)
				$\chi^2(df)=219.41(45)^{***}$			

* $p < .05$, ** $p < .01$, *** $p < .001$.

나. 만 3세아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의 영어교육 실태

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및 주 이용 기관

여기서 반일제 이상 기관이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을 뜻한다. 응답자 1,113명 중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을 만 3세때 ‘다닌 적이 없다’가 65.3%, ‘다닌 적이 있다’가 34.7%로 기관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 시기에 최장기 이용 기관으로는 보육시설 62.2%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32.1%, 놀이학원 3.9%, 영어학원 1.3%,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2)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오전 영어교육 실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386사례의 경우, 오전에 받은 영어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69.4%가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오전에 영어교육을 한 경우가 83.9%로 보육시설 61.3%에 비하여 높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오전부터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표준보육과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다는 반증으로 기본교육과정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만3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안함	함	계	F
이용기관				
전체	30.6	69.4	100.0(386)	
유치원	16.1	83.9	100.0(124)	
보육시설	38.8	61.3	100.0(240)	n/a
영어학원	0.0	100.0	100.0(5)	
놀이학원	33.3	66.7	100.0(15)	
기타	0.0	100.0	100.0(2)	

주: n/a는 빈도분포특성상 통계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7>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영어학원과 놀이학원 이용 사례가 매우 적지만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놀이학원에

비하여 영어학원에서 교육시간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놀이학원에서는 약 30분씩 주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은 약 168분씩 주 4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월 1~2만원 정도, 영어학원은 44만원, 놀이학원은 11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표 7〉 만3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시간 및 비용

단위: 명, 회, 분,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주당 횟수					
전체	268	2.0	1.1	1 - 5	
유치원	104	2.0 ^a	1.2	1 - 5	
보육시설	147	2.0 ^a	0.9	1 - 5	5.87 ^{***}
영어학원	5	4.2 ^b	0.8	3 - 5	
놀이학원	10	2.4 ^a	1.2	1 - 5	
기타	2	2.0 ^a	0.0	2 - 2	
회당 시간					
전체	268	34.9	23.7	10 - 240	
유치원	104	30.6 ^a	11.3	10 - 60	
보육시설	147	33.7 ^a	13.5	20 - 60	101.95 ^{***}
영어학원	5	168.0 ^b	65.7	60 - 240	
놀이학원	10	32.0 ^a	13.2	20 - 60	
기타	2	30.0 ^a	0.0	30 - 30	
이용비용					
전체	268	2.6	6.9	0 - 50	
유치원	104	1.0 ^a	1.9	0 - 6	
보육시설	147	1.8 ^a	2.9	0 - 22	205.74 ^{***}
영어학원	5	44.0 ^c	10.8	25 - 50	
놀이학원	10	10.7 ^b	10.3	0 - 28	
기타	2	0.0 ^a	0.0	0 - 0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01$.

3)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오후 영어교육 실태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후 시간대에 제공한 영어 프로그램의 이용여부를 결

과 13.5%만이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2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육시설 10.8%였다.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오후의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추가로 이용한 경우는 없었다. 영어학원은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하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후까지 어린 자녀에게 영어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8〉 만3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특별활동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안함	함	계	F
이용기관				
전체	86.5	13.5	100.0(386)	
유치원	79.8	20.2	100.0(25)	
보육시설	89.2	10.8	100.0(26)	n/a
영어학원	100.0	0.0	100.0(5)	
놀이학원	93.3	6.7	100.0(15)	
기타	100.0	0.0	100.0(2)	

주: n/a는 빈도분포특성상 통계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9>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후에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용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당 횟수는 평균 1.8회, 1회당 시간은 평균 36분, 비용은 약 7만원으로 보고되었다. 유치원이 평균보다 대체로 높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약 30~40분씩 주 2회, 비용은 6~10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표 9〉 만3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특별활동 교육시간 및 비용

단위: 명, 회, 분,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주당 횟수					
전체	52	1.8	0.9	1 - 5	
유치원	25	2.0	1.0	1 - 5	0.63
보육시설	26	1.7	0.7	1 - 3	
놀이학원	1	2.0	-	2 - 2	
회당 시간					
전체	52	36.3	12.3	20 - 60	
유치원	25	39.2	11.5	20 - 60	
보육시설	26	33.3	12.7	20 - 60	1.57
놀이학원	1	40.0	-	40 - 40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이용비용					
전체	50	7.1	13.6	0 - 80	0.17
유치원	25	8.1	15.6	0 - 80	
보육시설	24	6.0	11.7	0 - 60	
놀이학원	1	10.0	-	10 - 10	

* $p < .05$.

다. 만 4세아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영어교육 실태

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및 주 이용 기관

응답자 1,113명 중 만 4세 때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75.0%로 다수의 유아가 기관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최장기 이용 기관으로는 유치원이 51.4%로 가장 많고, 보육시설이 43.2%, 영어학원 4.1%, 놀이학원 1.0%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만 3세때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점에서, 만 4세 때 이용기관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으며 영어학원의 이용 경우가 사례수는 34사례로 많지 않지만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실태

만4세 때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오전에 받은 영어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3.4%가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영어학원은 100%가 영어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86.5%,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79.2%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놀이학원을 이용한 경우는 37.5%만이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0〉 만4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안함	함	계	F
이용기관				
전체	16.6	83.4	100.0(835)	n/a
유치원	13.5	86.5	100.0(429)	
보육시설	20.8	79.2	100.0(361)	
영어학원	0.0	100.0	100.0(34)	
놀이학원	62.5	37.5	100.0(8)	
기타	33.3	66.7	100.0(3)	

주: n/a는 빈도분포특성상 통계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11>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놀이학원에 비하여 영어학원에서 교육시간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보육시설, 놀이학원에서는 약 33~57분씩 주 2~3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학원은 약 156분씩 주 5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월 2만원 정도, 영어학원은 59만원, 놀이학원은 15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이용사례가 각각 34명, 3명으로 적고 회당 시간과 비용의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해야 한다.

<표 11> 만4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시간 및 비용

단위: 명, 회, 분,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주당 횟수					
전체	696	2.4	1.2	1 - 7	
유치원	371	2.4 ^a	1.1	1 - 5	55.71 ^{***}
보육시설	286	2.1 ^a	1.0	1 - 5	
영어학원	34	4.9 ^b	0.7	3 - 7	
놀이학원	3	3.0 ^a	2.0	1 - 5	
기타	2	2.0 ^a	0.0	2 - 2	
회당 시간					
전체	696	39.2	34.6	10 - 369	
유치원	371	33.3 ^a	13.6	10 - 180	
보육시설	286	33.0 ^a	11.9	10 - 60	241.81 ^{***}
영어학원	34	155.6 ^b	84.6	40 - 360	
놀이학원	3	56.7 ^a	30.6	30 - 90	
기타	2	25.0 ^a	7.1	20 - 30	
이용비용					
전체	693	5.0	14.6	0 - 120	
유치원	369	2.2 ^a	5.1	0 - 42	
보육시설	285	2.1 ^a	2.5	0 - 10	424.35 ^{***}
영어학원	34	59.2 ^c	30.4	0 - 120	
놀이학원	3	14.7 ^b	22.0	0 - 40	
기타	2	0.0	0.0	0 - 0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01$.

3) 반일제 이상 기관의 오후 영어교육 실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오후에 받은 영어특별활동 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1.4%만이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 때 이용률이 13.5%에 다소 상승되었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25.6%, 놀이학원의 경우 25.0%, 보육시설의 경우는 17.5%로 보고되었고 한편 영어학원은 11.8%로 적었다.

〈표 12〉 만4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특별활동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안함	함	계	F
이용기관				
전체	78.6	21.4	100.0(835)	
유치원	74.4	25.6	100.0(429)	
보육시설	82.5	17.5	100.0(361)	n/a
영어학원	88.2	11.8	100.0(34)	
놀이학원	75.0	25.0	100.0(8)	
기타	100.0	0.0	100.0(3)	

주: n/a는 빈도분포특성상 통계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13>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후에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비하여 놀이학원과 영어학원에서 교육시간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약 35~39분씩 주 2회, 놀이학원과 영어학원에서는 약 65~78분씩 주 4~5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만 4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특별활동 시간 및 비용

단위: 명, 회, 분,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주당 횟수					
전체	179	2.3	1.0	1 - 5	
유치원	110	2.3 ^a	0.9	1 - 5	
보육시설	63	2.0 ^a	0.8	1 - 4	4.73 ^{**}
영어학원	4	5.0 ^c	0.0	5 - 5	
놀이학원	2	3.5 ^b	2.1	2 - 5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회당 시간					
전체	179	38.5	14.5	6 - 150	
유치원	110	38.6 ^a	11.9	6 - 90	
보육시설	63	35.2 ^a	9.4	20 - 60	8.40 ^{***}
영어학원	4	77.5 ^b	49.2	40 - 150	
놀이학원	2	65.0 ^b	35.4	40 - 90	
이용비용					
전체	178	6.4	6.6	0 - 60	
유치원	110	6.7 ^a	6.4	0 - 60	
보육시설	62	4.4 ^a	2.1	0 - 10	36.83 ^{***}
영어학원	4	20.5 ^b	17.4	0 - 35	
놀이학원	2	25.0 ^b	21.2	10 - 40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비용은 유치원은 월 7만원, 보육시설은 월 4만원 정도, 영어학원은 21만원, 놀이학원은 25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오후 특별활동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적어(각각 4명, 2명)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라. 만 5세아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의 영어교육 실태

1)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여부 및 주 이용 기관

응답자 1,113명 중 만 5세 때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96.4%로 대다수의 유아들이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최장기 이용 기관은 유치원 73.3%, 보육시설 19.3%, 영어학원 6.6%, 놀이학원 0.5%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 직전인 만 5세때 유치원의 이용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영어학원 이용이 만 4세때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2)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이용 실태

여기서 반일제 이상 기관이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을 뜻한다. 응답자 1,113명 중에서 반일제 이상 기관을 만 3세때 '다닌 적이 없다'가 65.3%, '다닌 적이 있다'가 34.7%로 기관을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오전에 받은 영어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4.6%가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은 100%에 가깝게 보고되었고,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85.0%, 보육시설

의 경우는 77.8%로 보고되었다.

〈표 14〉 만5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안함	함	계	F
이용기관				
전체	15.4	84.6	100.0(1,073)	
유치원	15.0	85.0	100.0(786)	
보육시설	22.2	77.8	100.0(207)	n/a
영어학원	1.4	98.6	100.0(71)	
놀이학원	0.0	100.0	100.0(5)	
기타	0.0	100.0	100.0(4)	

주: n/a는 빈도분포특성상 통계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15>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전에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비하여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에서 교육시간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는 약 35분씩 주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학원은 약 115분씩 주 5회, 놀이학원은 약 72분씩 주 5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월 3만원 정도, 영어학원은 54만원, 놀이학원은 17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회당 시간과 비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아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만5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전 영어교육 시간 및 비용

단위: 명, 회, 분,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주당 횟수					
전체	908	2.6	1.28	1 - 7	
유치원	668	2.4 ^a	1.14	1 - 5	71.80 ^{***}
보육시설	161	2.3 ^a	1.12	1 - 5	
영어학원	70	4.7 ^b	0.91	1 - 7	
놀이학원	5	4.6 ^b	0.89	1 - 5	
기타	4	2.0 ^a	0.82	1 - 3	
회당 시간					
전체	908	41.0	33.72	2 - 360	
유치원	668	34.1 ^a	12.43	2 - 180	
보육시설	161	36.6 ^a	12.87	3 - 60	157.82 ^{***}
영어학원	70	115.1 ^b	82.70	30 - 360	
놀이학원	5	72.0 ^c	34.21	30 - 120	
기타	4	37.5 ^a	17.08	20 - 60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이용비용					
전체	904	7.1	16.6	0 - 150	460.79***
유치원	665	3.0 ^a	5.1	0 - 42	
보육시설	160	3.2 ^a	4.8	0 - 50	
영어학원	70	54.0 ^b	29.2	0 - 150	
놀이학원	5	17.0 ^c	21.1	0 - 40	
기타	4	1.3 ^a	2.5	0 - 5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01$.

3)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교육 실태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한 경우 오후에 받은 영어특별활동 교육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0.2%만이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을 이용한 경우 32.7%, 보육시설의 경우는 28.0%로 보고되었고 한편 영어학원은 8.5%로 적었다. 놀이학원의 경우는 전체 이용자 5명 중 3명(60%)이 오후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만5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특별활동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안함	함	계	F
이용기관				
전체	69.8	30.2	100.0(1,073)	n/a
유치원	67.3	32.7	100.0(786)	
보육시설	72.0	28.0	100.0(207)	
영어학원	91.5	8.5	100.0(71)	
놀이학원	40.0	60.0	100.0(5)	
기타	100.0	0.0	100.0(4)	

주: n/a는 빈도분포특성상 통계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다음 <표 17>는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 오후에 특별활동으로 영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당 횟수, 회당 시간,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유치원, 보육시설, 영어학원에 비하여 놀이학원에서 교육시간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약 39분씩 주 2회, 보육시설에서는 약 35분씩 주 2회, 영어학원에서는 약 45분씩 주 3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학원은 약 63분씩 주 4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유치원은 월 6만원, 보육시설은 월 4만원 정도, 영어학원은 21만원, 놀이학원은 33만원 정도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의 경우 오후 특별활동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적어(각각 6명, 3명) 일반화 하기에는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표 17> 만5세 반일제 이상 기관 오후 영어특별활동 교육시간 및 비용

단위: 명, 회, 분, 만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F
주당 횟수					
전체	324	2.3	1.06	1 - 5	4.73**
유치원	257	2.3 ^a	1.10	1 - 5	
보육시설	58	2.3 ^a	1.13	1 - 5	
영어학원	6	3.0 ^a	1.79	1 - 5	
놀이학원	3	4.3 ^b	1.16	3 - 5	
회당 시간					
전체	324	38.3	11.25	20 - 120	8.40***
유치원	257	38.6 ^a	11.03	20 - 120	
보육시설	58	34.6 ^a	8.50	20 - 60	
영어학원	6	45.0 ^a	16.43	30 - 60	
놀이학원	3	63.3 ^b	25.17	40 - 90	
이용비용					
전체	324	6.3	6.63	0 - 80	36.83***
유치원	257	6.2 ^a	6.04	0 - 80	
보육시설	58	3.9 ^a	2.30	0 - 10	
영어학원	6	20.5 ^b	10.80	6 - 35	
놀이학원	3	32.7 ^c	12.70	18 - 40	

주: a, b, c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마. 가정에서의 영어교육 경험

지금까지는 유아기에 반일제 이상 기관에서의 영어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가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는 영어 경험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가정에서 영어를 접하게 되는 경로로는 1) 영어교재(책, 비디오, dvd 등) 2) 영어(방문)학습지 3) 온라인 영어학습 4) 영어(그룹)과외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용여부, 최초 이용 시기, 비용, 주당 이용 횟수·시간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가정에서의 다양한 영어교육 경험

단위:%, 세, 만원, 회, 분

구분	이용여부		최초 연령	표준 편차	비용	표준 편차	주당 횟수	표준 편차	회당 시간	표준 편차
	있음	없음								
영어교재	81.6	18.4	4.3	1.3	46.9	60.1	-	-	-	-
영어방문학습지	27.9	72.1	5.2	1.2	7.1	10.4	1.1	0.7	23.1	10.9
온라인영어	4.6	96.0	5.2	1.2	3.4	3.9	3.7	2.0	24.3	10.4
영어과외	4.3	95.7	5.5	0.7	19.0	15.0	2.2	0.9	60.7	16.0

유아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경험하는 영어교육 유형은 영어교재 구입으로, 4.3세에 시작하며 비용은 평균 47만원 정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용 경험이 많은 유형은 방문학습지인데 27.9%정도만이 이용했으며 평균 5.2세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온라인영어(인터넷 영어), 영어과외를 경험한 사례는 소수에 그쳤다.

5. 사례조사 연구결과

유아영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⁴⁾ 학부모의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실태, 유아영어학원의 수업 실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 학부모의 유아영어학원 선택 이유

1) 영어교육을 위해 원하는 유치원교육을 포기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 유아영어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의 가장 큰 이유는 “남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가 63.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 2009). 여기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란 다른 아닌 영어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유아영어학원을 현재 보내는 학부모를 면담하였다. 이들 부모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추천으로 어렵게 입학한 OO대학부속유치원에 보내다가 중간에 영어학원으로

4) 피면담자의 명단과 특성은 I 장을 참조

웁긴 박OO 학부모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앞둔 만 5세 남아를 두고 있었다. 다니는 유치원을 포기하고 영어학원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유치원과 영어학원의 병행하는 스케줄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이었다.

“OO부속유치원을 정말 포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추천 받고 들어갔고, 대기도 너무 많아요. 다른 교육 내용은 너무 만족하고 아이도 좋아했는데, 현실은 어떻게든 7세가 되면 영어는 어떻게든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유치원을 다니면서 또 3시 반에 집에 와요. 7세가 되면 보통 월, 수, 금요일은 영어학원을 다니거든요. 5시간씩 그럼 아이가 너무 지쳐하는 거예요. 9시에 갔다 6시에 집에 오고, 또 숙제를 하고, 그런데 남자아이다 보니까 되게 뛰어다니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발산을 해야되는데. 월 수 금을 영어를 하고 그러면, 화, 목요일은 미술학원이나 다른 교육을 시키다 보면 아이는 일주일 내내 학원과 유치원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계속 전날까지 하다가... 그런데, 영어유치원을 보내면 많을 것을 포기를 해야 되지만, 아이가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깐,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고, 그런 시간은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7세 까지만 해도, 좀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웁긴 거예요. 웁기고 나니깐 오후에 시간이 나니깐, 아이도 한 걸 좀 편안해 하죠.” (박OO 사례)

영어학원을 보내면 유치원에서 처럼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견학, 실외활동 기회가 많이 줄어준다고 한다. 이처럼 영어학원을 선택하면 유치원에서의 다양하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위해 유치원을 포기했다. 그래서 영어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은 영어학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주말마다, 또는 오후에 시간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박물관 견학 등을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 이를 일명, ‘엄마표 유치원’이라고 한다. 영어학원을 보냄으로서 상실된 유아교육 기회를 엄마가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흉내내어, 직접 스케줄을 만들어서 아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케 한다.

“지금 유아영어학원에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여유 시간이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는데, 엄마가 해줘야되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일반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자연이나, 동물, 견학 등 여러 가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영어학원에 가니깐, 그런 걸 다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원을 돌면서 해주거나, 선생님을 부르던가,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해주던가... 해야되니깐 엄마가 해줘야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다녀야 되죠. 인터넷으로 찾아서 딸기 따는 농촌 체험학습 등을

예약해서 가고...” (박00 사례)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임00 학부모, 그리고 간담회에 참여한 학부모들 거의 대부분이 영어학원이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유치원 교육이 맘에 들고 좋지만, 결국은 영어를 위해 포기를 하고, 부족한 체험활동이나 기타 교육들은 엄마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짜서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케 하고 있었다.

2) 유치원에서의 놀이식 영어교육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영어학원 선택 이유는 유치원의 영어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유치원에서는 영어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체계적이지도 않아서 영어학원을 선택하였다. 즉, 유치원에서 놀이식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영어교육 수준과 맞지 않아서 불만이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는 다녔던 00부속 유치원은 수업이 정해져서 이 시간은 미술을 한다. 이 시간은 이런 걸 배운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쪽 영역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교육이 좋으면 한 시간이던, 두 시간이던 계속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문제는 외국어 선생님께서 오세요. 일주일에 2~3번 교육시간이 있고, 학부모들이 계속 영어 얘기를 하니깐, 중간에 엄마들이 영어 얘기를 하니깐, 요리시간에도 영어를 쓰면서 쿠키를 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는 문제가 아이들마다 학습능력이나 진도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선행학습을 학원에서 받은 아이들도 많고 저의 아이의 경우는 캐나다 문화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원어민을 대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울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 아는 단어를 하고 거기서 하게 너무 뻘 한 건예요. 재미가 없어요” (박00 사례)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의 영어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으며, 또 놀이식으로 되풀이되는 영어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수준별에 따라 반편성을 하고 체계적이며 놀이식이 아닌 주입식으로 배우기를 원해서 영어학원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질문)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왜 학부모들은 영어 학원을 보내나요? (답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시간은 2~3시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수준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인데 진도가 있어서 올라 가야하는데, 매번 노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00 사례)

나. 유아영어학원의 영어교육 실태

1) 미국교과서 중심의 교육

소위,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유아영어학원의 많은 경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미국교과서’의 사용이다. 영어, 과학, 사교력, 수학, 음악, 역사, 경제 등 교과중심으로 수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별마다 교과서가 있다. 본 연구진이 방문한 F영어학원의 설명회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17과목을 100% 영어로 진행하는 언어/내용 통합의 교육”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방대한 양의 교과서가 있고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서.. 엄마가 원하면 돌려 보기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 월요일날 보내면서,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책이 무거우니깐 나눠서 보내줘요. 인제 어느 만큼 공부를 했구나, 교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교재는 원할 때 볼 수 있는데, 말 듣기로는 영어학원에서 쓰는 교재가 또래 외국아이들 커리큘럼과 똑같은 과정이고 오히려 3~4년 배운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연령의 외국아이들 보다 단어도 많이 알고 더 훌륭하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열 때문에 외국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 하더라구요. 한국 학부모들은 진도율에 예민해 하고 선행학습을 좋아하고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평가가 나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00 사례)

교과마다 교재가 있어서 갖고 다니기란 불가능하며, 부모가 원할 경우 교사가 부분 부분 나눠서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배우는 영어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를 꾸준히 배운 유아의 경우 똑같은 연령의 외국아이들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안다고 한다. 선행학습을 중시하고 성과(평가)를 중시하는 우리 학부모의 입맛에 맞게 유아영어학원은 운영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진과 현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의 면담 내용이다.

“(질문)여기 한국 아이들이 만5세 때 배우는 게, 미국 교과서 만5세 때 배우는 거랑 같은 것은 배우나요? (대답)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이는요.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서 강남 대치동이나 저기 거제도나 똑같은 교과서를 쓴다면, 미국은 36주(state) 이상이 있다보니깐,.....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지역의 차이인 거지. 그 학년이 그 학년 거 쓰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교과 내용은 미국 것과 똑같아요.”(최OO 사례)

학부모 면담뿐만 아니라 학원장 면담에서도 미국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교과서는 원서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비싸다. 이 학원을 기준으로 교재비가 6개월 단위로 약 60만원정도 된다고 하였다.

미국교과서 중심의 교육방법은 교과서가 없는 유치원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교과서도 영어, 수학, 경제, 역사 등 초등학생용 교과목이라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지만, 미국 또래 유아에 비해 어려운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 남과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은 한국 학부모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2) 숙제와 단어시험 정기적 실시

유아영어학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숙제와 단어시험이 거의 매일매일 있다는 점이다. 유아발달상 이러한 주입식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영어학원에서는 일상적으로 숙제를 내 주거나 단어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숙제나 단어시험이 아니더라도 영어일기 쓰기는 대부분 영어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숙제로는 일별과제가 있고 주별과제 있어요. 이렇게 초창기 처음에는 한 문장을 세번씩 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동사를 하나주고 데일리(일별과제)로 초창기에는 보고 쓰는 거, 영작을 하는 게 매일 숙제고, 영작을 하는 거로 주말에는 친구들 앞에서 주제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해요. 프리젠테이션도 엄마 욕심에 보드사다가 붙이고 엄마들 과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 입장은 본인이 해서 지적도 받고 고쳐주고 하는 경우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완벽하게 하려는 엄마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혼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임OO 사례)

“저희는 주(week)마다 내는 숙제는 없고 매일매일 하는데 처음부터 라이팅을 계속해요. 선생님이 문장으로 주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문장을 써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들이 (문

법 틀린 그런 부분들을) 고쳐주는 거죠. 아직은 엄마수준에서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화를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는 칭찬 스티커를 받고 싶어하니까. 엄마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유치원에서 라이팅 시간에 해요. 주제를 정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쓰고 집에 와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박00 사례)

“애네는 하루에 3단어를 배우고 오는데요. 어느 날은 하나를 틀리고 와서 눈물이 그렇 그렇 한거예요. 자기는 스마트하다고 하나 틀리고 오더니 눈물이 그렇 그렇 해요. 단어시험은 배운 데서 내는거죠. 배운거를 시험을 보는거죠” (김00 사례)

매일 매일 세 단어를 시험을 보는 데, 이 중에 1개를 틀려서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에서 아이가 시험의 스트레스를 벌써부터 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영어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유아발달에 맞는 놀이식 교육이 아니라, 유아발달에 맞지 않더라도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있다고 생각하는) 주입식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3) 작은 교실, 빈약한 교재·교구

영어학원 대부분 상가나 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층에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는 유치원의 환경이나 유아발달에 맞는 다양한 교재·교구를 갖춘 유치원에 비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학원은 건물이나 상가에 4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도 많으며, 건물사용도 단독 사용은 거의 없고(12.4%) 다른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7.6%)(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 2009).

본 연구진이 방문한 F영어학원의 교실환경은 한마디로 성인 영어학원을 축소 한 학원에 가까웠다. 벽지 등은 유아환경에 맞게 꾸며놓았으나, 강의실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칠판 정도만 있을 뿐 유치원처럼 교재·교구는 거의 없었다. 한 반에 8~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며 책상, 의자, 그리고 교실 앞면에 smart board가 설치되어 앞에 나와 발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영어학원이 1인 강사 대 아동 비율은 일반유치원에 비해 적지만, 교실 크기 자체가 일반 유치원 교실에 비해 작아서 균형잡힌 대·소근육을 이용한 활동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4) 다양한 체험활동 부족

영어학원에 와서는 오로지 영어만을 사용하기를 강요한다. 학원입장에서는 강

요가 아니라 교육지침일 것이다. 교사도 유아도 모두 영어학원에서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영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나 자유시간에 마음껏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시간 자체가 짧다. 자유놀이 시간은 점심시간 외에는 없었다.

“(질문)선생님이 주관하지 않고(선생님이 없고), 아이들끼리 노는 시간은? (답변) 그것은 점심시간. 점심시간에...그러니깐, 12시부터 12시 20분 정도면 애들이 점심을 다 끝내더라구요. 그럼, 40분 정도는 자기들끼리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 놀이, 엄마 놀이, 선생님 놀이, 뭐. 그렇게 합니다.” (최00 사례)

유치원에서 매월 1회 이상의 보편적인 현장체험학습도 영어학원에서는

“1개월에 1~2회 현장학습을 하는 일반유치원과 비교하여 유아영어학원은 3개월에 1~2회의 현장학습을 실시해요” (박00 사례)

이러한 학원의 운영방침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학부모들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어학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실력 향상’ 또는 ‘유창한 영어구사 능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부모들은 학생을 실력(레벨)별로 편성하여 수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사용하는 EFL환경보다는 영어로만 사용하는 ESL 환경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며 이를 위해서 일반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을 고액이지만, 그리고 유치원교육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임을 잘 알고 있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영어학원을 선택하고 있었다.

6. 유치원에서 영어교육 운영에 관한 정책 제언

1) 유치원의 운영철학이 시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값비싼 유아학원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47.4%),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재능을 전문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16.0%) 유아학원을 선택한다는 부모의 응답에서(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 2009) 부모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열을 읽을 수 있다. 유아학원의 성행은 이러한 부모들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도 하겠다.

그러나 유아학원의 성행, 이로 인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원아모집이 어렵다고 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유아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을 제안하는 정책 제언은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그 실효성면—최소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원아모집이 수월하게 되는 측면에서—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영어학원을 전에 운영한 강○○ 학원장을 면담에서 학원장은 “부모들이 고액의 유아학원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아학원이란 '값비싼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누구나가 다니는 보편화된 유아 교육·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될 수록, 다른 한편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누구나가 다니지 못하는 특별한 기관에 보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데, 이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곳이 다름 아닌, 값비싼 유아학원이란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처럼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외국인 학원강사를 고용하여 미국교과서를 이용하는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유아학원의 성행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2) 영어학원은 학습결과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사교육 학원으로서 영어학원의 영어교재나 수업방식은 유치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유치원에 영어학원식 영어교재나 수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영어학원이 아무리 유치원 교육과정을 따르고 유치원처럼 환경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학원이다. 그리고 사교육 영역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철저히 수요자의 요구와 입맛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학원 이용 만족도가 학부모의 경우 대체로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학원은 미국교과서 등 원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초등학교처럼 과목별로 교과서가 있으며, 어느 영어학원은 17개과목의 교과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제와 정기적인 시험도 영어학원이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유치원은 유아발달에 맞는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을 지난 100여년 이상 실시해 온 대표적인 유아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영어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재는 유치원에서 도입,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유치원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는 전체 인구 대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아학원이 가장 많다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조사에서도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을 이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다. 유아학원의 성행은 일부 지역의 일

부 계층에서 나타나는 지역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실제 2008년도 만 5세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율이 감소했지만 2009년도에 다시 반등하였다. 2008년도의 이용율 감소는 정부의 영어몰입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정책은 공교육제도를 완비하는데 주력을 하고, 일부 지역에 특정 계층의 선택 행위에 국가 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영어 관련된 교육정책이나 입시정책은 유아영어교육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정부 당국은 인지하여, 정책수립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유아교육 담당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3) 누구나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교육비가 저렴한 유치원이 보편화되어야 하며, 만 5세아부터 하루 속히 무상교육이 실현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면담조사에서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 싶지만 집주변에 갈 만한 유치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학원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다(김OO사례). 이 가정의 거주 지역은 강남 지역으로 부모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정이 많은 지역이다. 고액의 유아학원은 구매력이 높은 가정이 많은 지역에 설립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만 5세때 대부분 선택하는 유치원이 집주변에 없으면 구매력을 갖춘 이들 가정은 보육시설보다는 영어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한편, 일부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영어학원에 버금가는 정도로 비싸다. 실리적인 학부모들은 비슷한 비용이라면 이왕이면 영어를 그것도 원어민에게 배울 수 있는 영어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학 직전 만 5세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고액의 수업료이지만 취학 전 1년 정도는 부담을 감수하고 기꺼이 영어학원을 보내는 사례를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치원의 취원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지, 유치원의 영어프로그램 도입은 해답이 될 수 없다.

- 4)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실질적인 연계성을 가져서 초등학교 진학시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가 유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설문결과에서 실제 유치원에서 오전 시간대에 영어교육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영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동기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실시”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통해 유아들은 영어교육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현실이다.⁵⁾ 유치원 교육과정에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영어를, 유치원에서 그것도 오전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배운다는 사실은 유치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빨간불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은 공교육의 출발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나가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영어 수업시수가 없는데 유치원의 정규 교육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다.

한편, 유치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초등학교 진학시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마련 이전에 유아교육선진화사업에서 표방한 대로 유치원에서 영어특별활동을 실시하려면 초등학교처럼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오후 시간에 지금처럼 놀이식 방법으로 엄선된 프로그램을 선정,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영어교육의 수요가 가장 많은 만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의 영어특별활동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만 3세나 만 4세 때 경험했던 영어프로그램을 반복, 중복해서 실시한다는 인상을 학부모가 갖기 않도록 프로그램 선정시 이를 염두해 두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영어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5) 지면관계상 본고에는 실지 못했지만, 하원 후 타 기관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없다고 92.3% (만 5세 기준)가 응답함.

참고문헌

- 김은영·조혜주·김경미(2009).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실태보고. 육아정책연구소.
- 신의진(2002). 조기 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한국 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2년도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9-42.
- 양소영 (2004). 초등 영어학습에 나타난 조기영어교육의 효과. 한국 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남희 (2006). 유아의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 분석. 생활과학연구. 11, 126-133.
- 우남희 (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53-474.
- 이경희, 전예자 (1996).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유아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 203-230.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2010).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노출 시간과 비용, 육아정책포럼 제18호.
- 홍은자(2001). 어머니의 성취압력,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